



자동차/부품 Analyst 신윤철 yoonchul.shin@kiwoom.com

넥센타이어(002350)

[기업탐방 노트] 평가 인상, 유럽 성장, 비용 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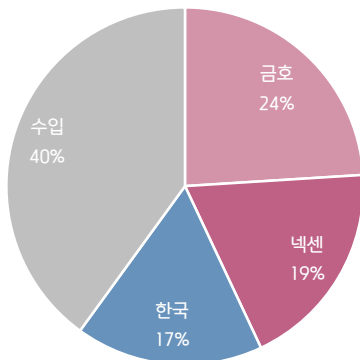
◎ 2022년 연간 실적: 매출액 2.6조 원(+24.9% YoY), 영업이익 -543억 원(적자전환) 기록

- OE: 20%, RE: 80%의 판매 Mix를 보였음. 특히 RE가 매출의 93%를 차지한 북미 매출은 현재 전량 국내에서 수출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의 2022년 운반비 증대 및 적자전환의 주 원인으로 파악됨
- '22년 연간 매출액 대비 운반비 17% 잠정 기록. 과거 pre-pandemic 시기에는 8% 이하 수준 유지. 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로 선사와 운임 재계약 진행하나, 수출 시 해상운송 의존도가 높은 타이어 제품 특성상 '22년에는 해상운송 이용에 스팟운임까지 지불하면서 북미 수출에 긴급 대응한 건수가 급증했음
- 2022년 지역별 매출 비중: 유럽 37%, 북미 30%, 한국 13%, 중국 5%, 기타 15%
- 2022년 주요 고객사별 매출 비중: 현대차그룹 50%, VW/Stellantis 합산 20%, GM/Audi/Porsche 합산 10% 미만, 중국 로컬 고객사 합산 5% 등

◎ 2023년 실적 가이드선스: 매출액 2.8조 원, 영업이익률 7%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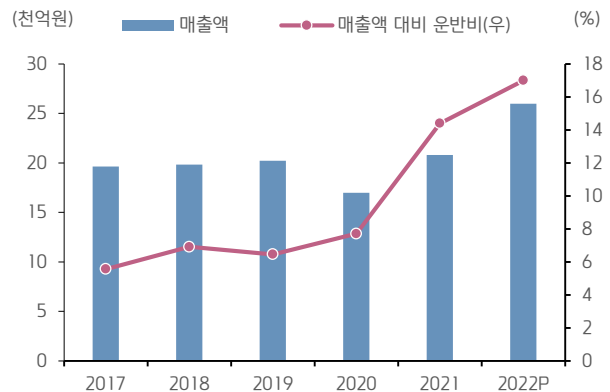
- '23년 연간 매출액 대비 운반비를 10%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수익성 회복에 집중할 예정
- 주요 경쟁사의 최근 평가 인상계획 발표에 따라 동사 역시 '23년 중 평가 인상을 계획 중. 특히 프리미엄 유럽 브랜드 신차 수주 증가로 올해 유럽에서 OE 중심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수익성이 높은 17인치 이상의 고인치 타이어를 주로 채택하는 고객사들을 확보하며 향후 고인치 타이어 RE 매출 성장도 기대할 수 있게 됨
- '23년 말 체코공장 2차 증설 완료를 기점으로 유럽 현지에서 원재료 수급을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해외 supply chain 개선될 것으로 기대. 원재료 수급처 다변화를 통해 원재료비 변동성에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할 예정
- 배당 성향 등 구체적 주주환원정책 관련 소통이 부재해왔음. 정부의 최근 배당정책 선진화 기조에 따라서 동사 또한 내부적으로 구체적 정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23년에는 일부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

2022년 OE 타이어 내수 시장점유율



자료: 산업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넥센타이어 매출액 대비 운반비 증감 추이



자료: 넥센타이어,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월 20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